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렌터카로 받은 사랑, 아이들을 위해...”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

후원·봉사활동 적극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한 몫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JRCOOP)은 기업의 마진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고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토종 렌터카 업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이사장 박병현)은 16개 회원사 모두가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 8호 인터뷰 대상자인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을 소개한다.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은 렌터카 16개 업체가 서로 상생을 목적으로 협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을 통해 기업의 마진을



제주지역 토종 렌터카 업체가 모여 만들어진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는 것은 물론 전 회원들이 나눔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진=초록우산 제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고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 사업장이기도 하다.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사무실 및 소속 렌터카 차량에는 나

눔을 상징하는 나눔 현판과 차량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박병현 이사장은 “제주도를 찾아주는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많은 분이 함께 동참해 주길 위한 마음으로 차량에 홍보

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은 정기후원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작년에는 조합원이 모여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 함께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선물을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주청소년드림페스티벌에 아이들이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박병현 이사장은 “지금의 어린 친구들이 자라면서 나라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도 조합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후원문의=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6·13지방선거 원 지사 캠프 관계자 문대림 후보 골프 의혹 제기 '무죄'

항소심 “허위 증거 부족” 징역·집유 1심 판결 번복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제주도 공보관 강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비서관 고모(43)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강씨는 원 지사 후보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의혹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심은 문 전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의혹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 지사 측은 문

전 후보의 골프 의혹을 맨 처음 A조합장을 통해 제보 받았으며, A조합장은 이 내용을 직원인 B씨에게서 들었다. 또 B씨는 이 내용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가 검경 조사와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문 전 후보와 C씨, D씨, E씨가 경선 직후 함께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를 쳤다는 말을 C씨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었다.

반면 C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D씨와도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와 D씨가 지난해 4월 7일부터 22일까지 9차례 통화한 점을 토대로 C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 전 후보에 대한 “문 전 후보는 캠프 대변인이 A씨와 B씨를 고발한 것이 자신은 고발을 지시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골프모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줄도 몰랐다고 말하는 등 마치 낯익은 대하듯 진술했다”면서 “골프모임을 숨기려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이 골프장 곳곳에 있는 여러 CC(폐쇄회로)TV 중 프론트 CCTV만 조사해 의혹이 허위라고 결론 내린 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상민기자

“연안습지 보호위해 해안사구 보전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토론회

제주도의 연안습지 보호를 위해서 해안사구를 포함한 전이지대의 보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제주도 연안습지의 관리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해안사구를 포함한 전이지대의 보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돼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모래 언덕인 해안사구는 조간대와 연결된 생태계이고 끊임없이 조간대와 상호교류를 하는 생태계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

이라며 “그러나 습지보전법에서는 연안습지의 범위에 해안사구가 들어 있지 않아 부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2017)에 따르면 제주도는 과거 해안사구 면적이 13.5㎢에서 현재는 2.38㎢로 약 82%에 해당하는 11.17㎢가 감소했다”며 “이는 마라도 면적의 37배이며 축구장 면적 1354개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또 “제주도 해안사구의 75.4%가 국유지로서 해안 사구 보전 조례 제정이나 습지보전지역 지정할 경우 사유지에 비해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며 “습지보전조례와 별도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조례’를 제정해 해안사구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버섯따기 체험 4일 제주시 구좌읍 '제주표고농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버섯따기 체험을 하고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자치경찰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내년 상반기 내로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 분석관을 갖춘 '자치경찰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에 따라 사수가 늘어

났지만 디지털 포렌식 장비·인력이 없어 제주지방경찰청에 의존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이 맡는 사수가 늘어나면서 제주지방경찰청

(국가경찰)에 요청하는 디지털포렌식 식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경찰이 결과를 보내주는 시점은 빨라야 한달 반이다. 이마저도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것인데, 자존심이 상할 수 밖에 없다”며 3억원에 이르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은범기자

특성화고 출신 11명 올해 공무원 '합격'

올해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공무원시험 합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재학생 7명과 졸업생 4명이 2019년도 제주지역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는 5명이다.

올해 합격자가 늘어난 것은 특성화고 출신의 공직 입문 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출신자들을 고졸 경력경쟁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 채용 인원을 늘리고 축산, 보건 분야에서도 채용을 진행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제주도 8명, 도교육청 3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식자재전문매장 MARTRO

사장님이 필요하신 모든식자재를 MARTRO가 책임지겠습니다!

마트로는 고객님의 다기능냉장고입니다!

- 365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송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대를 말씀해주시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하시는 장소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정모배달금액 협의)
- 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시면 매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구매할 상품을 사전에 요청해주시면 사장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식자재를 구매드리겠습니다!
- 축산물은 필요하신 사이즈로 손질해드리겠습니다.

MARTRO 점포안내

탐동점 756-6900 / 제주시 중앙로 13
일도점 751-4600 / 제주시 연수로 3길 6
노형점 745-7411 / 제주시 월항로10길 14

그랜드보청기

연말연시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15,000원
샴플 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수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감귤 신상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목록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천혜향(무독)
한라봉·탐나는봉·황금향
미니향·아마나스
제리몬(레몬)

조생 유라실생·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도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글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